

비싼 우리 사과 대신 수입 바나나

곡산 과일 이상기후로 작황부진...전년비 단감값 37%·사과 25% ↑ 수입과일 관세 면제에 망고값 23.5%·바나나 9% 하락...수요 늘어

비싼 곡산 과일을 대신해 비교적 저렴한 수입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곡산 과일은 이상기후와 질병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반면, 수입 과일은 지난해 정부가 11년 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는 2만7437원으로 지난해(2만 1958원) 동기보다 25.0%, 평년(2만 1371원)보다는 28.4% 올랐다. 사과뿐만 아니라 감과 단감, 배 등 대부분 과일이 모두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겨울 대표 간식 감귤은 10개 평균 소매가가 3611원으로 지난해(3204원) 같은 기간에 견줘 12.7% 올랐고, 늦가을부터 연말까지 수요가 많은 단감은 10개에 1만6185원으로 전년(1만1815원) 대비 37.0%나 상승했다. 올해 과일 가격이 과거에 비해 비싼 이유는 이상

기온과 병 발생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이어졌다.

당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2만5400 t으로 지난해(56만6000 t) 대비 24.8% 감소했다. 12월 사과 출하량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그나마 출하된 사과 조차 착색 불량, 응에 발생 등의 피해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2월 기준 사과 저장량은 지난해(29만2000 t)보다 30.6% 감소한 20만2700 t에 그쳤다.

단감 역시 생육 중 탄저병 발생, 낙과 증가로 출하량이 처참한 수준이다. 단감 올해 생산량은 7만 800 t으로 지난해(10만3900 t)에 견줘 31.9% 감소하면서 가격이 곡산 과일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과일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크게 감소하다보니 과일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업계 분석이다. 이처럼 곡산 과일 값이 품목별로 많게는 30%가

지 급등한 반면,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10개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30%였던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며, 사실상 면제를 결정했다. 대상 품목에 수입 과일 중 인기가 많은 베트남,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한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이 포함됐다.

바나나 수입량 3만 t, 망고 1300 t, 자몽 2000 t 등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아 세금 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은 할당관세 물량이 시장에 대폭 풀리게 되면서 수입 과일 가격이 낮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바나나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판매량은 13.8% 늘었다. 바나나 가격은 전월 대비 9% 감소했고, 망고(-23.5%), 자몽(-17%) 등 관세인하 품목은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곡산 과일의 대체재로 수입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겨울철 고구마 저장 방심했다간 ‘낭패’

구황작물에서 효자작물 등극...낮은 온도 보관 댄 실흐나고 부패

쌀쌀한 바람이 코끝에 스미는 계절엔 어김없이 고구마 생각이 난다. 삶은 고구마를 퐁치미와 함께 먹는 것도 좋지만,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군고구마는 상상만해도 행복하게 한다.

고구마는 중앙아메리카와 남미 베네수엘라가 원산지로 주로 아메리카에서 재배되다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 일본을 통해 조선통시사였던 조엄 선생에 의해 1763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1970년대까지는 구황작물로 부족한 식량을 대신했고, 쌀 자급을 이루어 낸 이후에는 주로 주정으로 활용됐다. 26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가지 색깔과 더불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이 육성돼 농민들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효자작물이 됐다.

고구마는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고구마를 나눌 때 흔히 말하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쪼꼬고구마는 육질의 특성으로 분류한 것이고, 품종에 따라 고유이름이 존재한다.

전분 함량이 높아 밤처럼 분질형을 보이는 고구마를 밤고구마라고 하는데, 육질이 단단해서 퐁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고구마들은 보통 ‘밤(밭 울)자’를 붙인다. 울미, 신울미, 진울미가 대표적이다.

수분함량이 높으며 베타카로틴(고구마 속 색이 옅은 주황색) 함량이 높아 조리 후 선명한 노란색을 보이는 고구마는 호박고구마라고 하며 이름은 ‘황(누를 황)자’가 들어 있다. 주황미, 신행미, 건황미, 연황미 등 품종 이름을 지닌 호박고구마 품종들이 있다.

또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진한 자색을 띠고 있는 자색고구마는 ‘자(자주빛 자)를 붙이는데 자미, 신자미, 연자미, 단자미가 있다.

저장 중에 단맛이 증가해 껍질이 맛이 좋은 고구마를 쪼꼬고구마라고 하는데 국내 품종에서는 소담미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맛 좋은 고구마는 키우는 것에 비해 저장하기가 어려운 작물로 유명하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적합한 온도(34-36도)와 습도(80-90%)에서 3-4일 숙성하는 치유(큐어링) 과정을 거쳐 맛이 좋아지고 보관 기간도 길어지게 할 수 있지만,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나 겨울에 두고 먹을 양으로 적당량을 구매해 소비자의 경우에는 싹이 나지 않도록 하거나 썩지 않게 저장(보관)하기가 쉽지 않을 때 문이다.

그래서였을까. 어릴 적 할머니가 겨울철 간식으로 쓸 고구마를 바람이 치지 않는 곳에 예지 중지 보관했지만, 싹이 나고 부패해 난감해하던 기억이 선하다.

당연히 도시 소비자들은 저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팁. 도심에서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베란다와 실외 등 차가운 곳은 피하고 일정한 온도(13-15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 고구마를 날개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다.

이처럼 고구마는 맛이 차도록 후숙하고, 저장을 잘해야 하는 농작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하나 더 농사는 키우는 것 만큼이나 좋은 상태로 저장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게 한다. /bigkim@kwangju.co.kr

수협중앙회-전남 6개 어촌계 ‘사랑의 김치’ 나눔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주홍보)는 지난 13일 전남동부수협 관할 조화어촌계 등 6개 어촌계에 김장김치 90상자(900kg)를 전달하는 사랑해(海)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봉사활동에는 수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배추 300포기를 직접 김장했다. 수협은 김장김치 외에도 생새우와 굴 등 겨울 제철 수산물을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주홍보 본부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본부 행복봉사단은 ESG경영 일환으로 ▲바다정화 ▲연탄나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K-푸드, 세계 시장서 활황

농식품 수출 83억달러 사상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7000만달러(10조7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수출액이 8억761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9% 증가했다.

딸기는 5610만달러로 22.2% 늘었고 쌀 가공식품은 1억9750만달러로 20.7% 증가했다. 음료 수도 5억3040만달러로 11.1% 증가했고 김치는 1억 4240만달러로 9.9%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2억8810만달러로 11.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12억250만달러로 8.5%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K푸드 플러스(+) 확대 추진본부’, ‘수출 정보데스크’ 등을 마련해 기업과 소통해 왔다.

현장 방문과 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약 400건 발굴했고 이중 한국산 인증마크 활용, 마케팅 지원 요청 등 344건은 즉시 해결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면세점 농식품 판매액은 1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두 배 수준이다.

면세점에서는 인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면세점에서 인삼류 판매액은 6400만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74.6%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점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두 부처가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경기부가

협력해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조승환 장관과 이영 장관은 시장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와 전통시장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며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이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겠다”라고 현장에서 밝힌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m² (296.14평)

■ 건물 : 323.86m²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